

영암군, 여성 취업 적극 지원

여성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에 총력

3개월간 현장맞춤형 직업상담사 양성과정



영암군이 위탁·운영하는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고영준, 이하 '영암여성센터')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3개월간 직업교육훈련으로 진행한 '현장맞춤형 직업상담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지난 7월 3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자격증 취득 및 현장 실무업무 향상을 위해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여, 수료 18명, 직업상담사 1차 합격 11명, 조기취업 2명의 성과를 이루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우리 아이 간식은 우리 쌀로 만들어요”

곡성군, 우리 쌀 디저트 과정 교육 실시



포도 인절미, 도수수 잡곡 설기 등 실습교육을 통한 실생활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쌀 활용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교육에서 배운 우리 쌀 디저트 나눔행사로 우리 쌀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 교육생 대표는 “100% 우리 쌀을 이용한 디저트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가족들에게 쌀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쌀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생활화되어 우리 쌀 소비도 촉진되며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곡성군은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으로 ‘우리 쌀 디저트 과정’을 개설해 지난 5일 개강식을 거쳤다.

이번 교육과정은 우리 쌀을 이용한 디저트 만들기로 오는 8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차 과정으로 문화센터 요리교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쌀가루와 찜기를 이용한

곡성군, 고품질 한우 생산

교육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곡성군은 6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류관에서 명품한우 농업인연구회 20명을 대상으로 한경대학교 황성구 교수를 초청하여 ‘한우 미세마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시양판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명품한우 농업인연구회에서는 최근 미세마늘에 대한 소비자 성향에 맞춘 고급육 한우 생산과 합리적인 축산농가 생산력 향상을 위해 시양판리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황성구 교수는 직접 한우를 키우며 실현하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마늘 고급육 생산을 위해 임소선발의 중요성과 송아지 발육생리 및 반추위 성장, 육성·비육기기에 맞는 사료 급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미세마늘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등급의 향상은 두당 80여만원의 차이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장기적으로 경제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교육에 참석한 입주섭 농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품질향상을 위한 시양판리뿐만 아니라 시기에 맞는 시양방법으로 사료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앞으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곡성=김광희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립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담빛예술창고,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정기연주 확대

주말 및 공휴일과 매주 화·목요일도 연주 키로



담빛예술창고는 7월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오피스행정인력 양성과정’을 개강에 맞춰,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취업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체 채용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진행했다. 영암새일센터 고영준 센터장은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맞춤형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교육과정 계획을 위해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다양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군, 고품질 한우 생산

교육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곡성군은 6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류관에서 명품한우 농업인연구회 20명을 대상으로 한경대학교 황성구 교수를 초청하여 ‘한우 미세마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시양판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명품한우 농업인연구회에서는 최근 미세마늘에 대한 소비자 성향에 맞춘 고급육 한우 생산과 합리적인 축산농가 생산력 향상을 위해 시양판리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황성구 교수는 직접 한우를 키우며 실현하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마늘 고급육 생산을 위해 임소선발의 중요성과 송아지 발육생리 및 반추위 성장, 육성·비육기기에 맞는 사료 급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미세마늘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등급의 향상은 두당 80여만원의 차이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장기적으로 경제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강진군, 찾아가는 학교방문 푸소체험 설명회

신청학교 학생회와 운영위 현장체험학습 자료 제공

강진군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방문 푸소체험 설명회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방문 푸소체험 설명회는 푸소체험 운영현황, 현장체험학습 교육부 매뉴얼, 학교와 이이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농박 해외사례 등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객관적인 판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푸소(FU-SO)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키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리는 의미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들여와 2015년 시작한 강진군의 푸소체험은 농가체험, 영광김성학교, 강진관내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농가체험은 농업 및 어업관련 만들기, 답사 등의 체험을 하면서 마음교류를 중요 요소로 하고 있다. 푸소체험은 지난해 8천494명이 다녀갔고 올해도 9천600명이 다녀갔거나 예약했으며 관계기관과 체계적이고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수익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지역민, 방문객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빛예술창고 전시관에서는 오는 7일부터 9월 2일(일)까지 ‘2018 국제 사진전-사진의 또 다른 관계성(Another Relationship of Photography)’ 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담빛예술창고를 비롯해 남촌미술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필립 퍼키스(미국), 리규체, 석자현, 이정록(以上 한국), 잉다, 자카, 리양, 스투트하이(以上 중국)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약 5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 담빛예술창고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전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 대리국제사진축제 비오 총감독 일행이 담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연주 및 전시 관련 문의사항은 (재)대한문화재단 행정지원팀(연주 : 061-388-8241), 담빛예술창고전시팀(전시 : 061-388-8240)에서 확인 가능하다.

담양=박종영 기자

을 구비하고 있다. 학교단위로 운영되던 푸소체험은 희망하는 가족들을 위해 7월 29일에는 전교생 20명의 바닷가 학교도 다녀보고 다양한 체험과 농가의 정이 있는 작은학교 여름캠프도 열린다. 찾아가는 학교방문 푸소체험 설명회 신청과 문의는 폐일(psu69@korea.kr) 또는 카카오톡에서 ‘푸소체험’을 검색해서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

학교의 일정에 맞춰 방문 설명회와 상담이 이루어진다.

강진=김영일 기자

화순 이서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